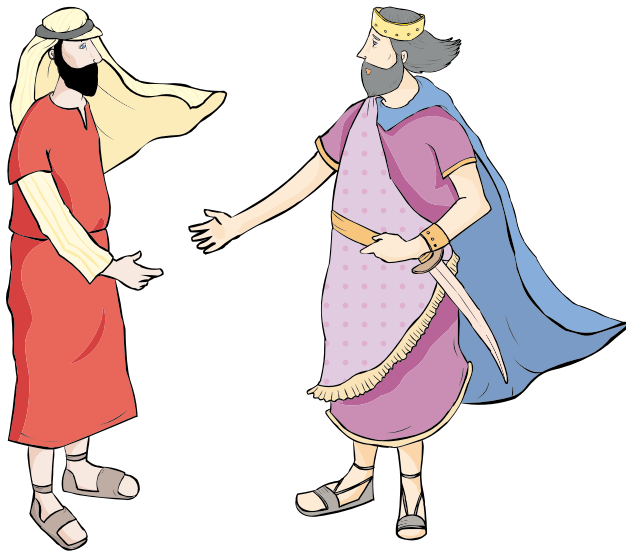


머리도
3·4학년
사근

제7권





발행처 영생의말씀사

기획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디자인 문서선교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305번길 37

연락처 070-7121-1280(문서선교부)

홈페이지 www.jbch.org(생명의말씀선교회) school.jbch.org

차례



2024년 3 · 4학년 머릿돌 제7권

- 27 세례 요한의 외침 ... 4 7월 7일
- 28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 9 7월 14일
- 29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 ... 14 7월 21일
- 30 기도하신 예수님 ... 20 7월 28일
- 31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 26 8월 4일
- 32 전도하신 예수님 ... 32 8월 11일
- 33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 38 8월 18일
- 34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 46 8월 25일
- 35 과부의 두 렵돈(한금) ... 52 9월 1일
- 36 발을 씻기신 예수님 ... 58 9월 8일
- 37 부자와 나사로(천국과 지옥) ... 64 9월 15일
- 38 선한 사마리아인 ... 70 9월 22일
- 39 갯세마네의 기도 ... 75 9월 29일



이것만은 기억해요!

27

세례 요한의 외침

누가복음 1장 8~25절, 3장 1~20절, 요한복음 1장 6~28절



제사장 사카랴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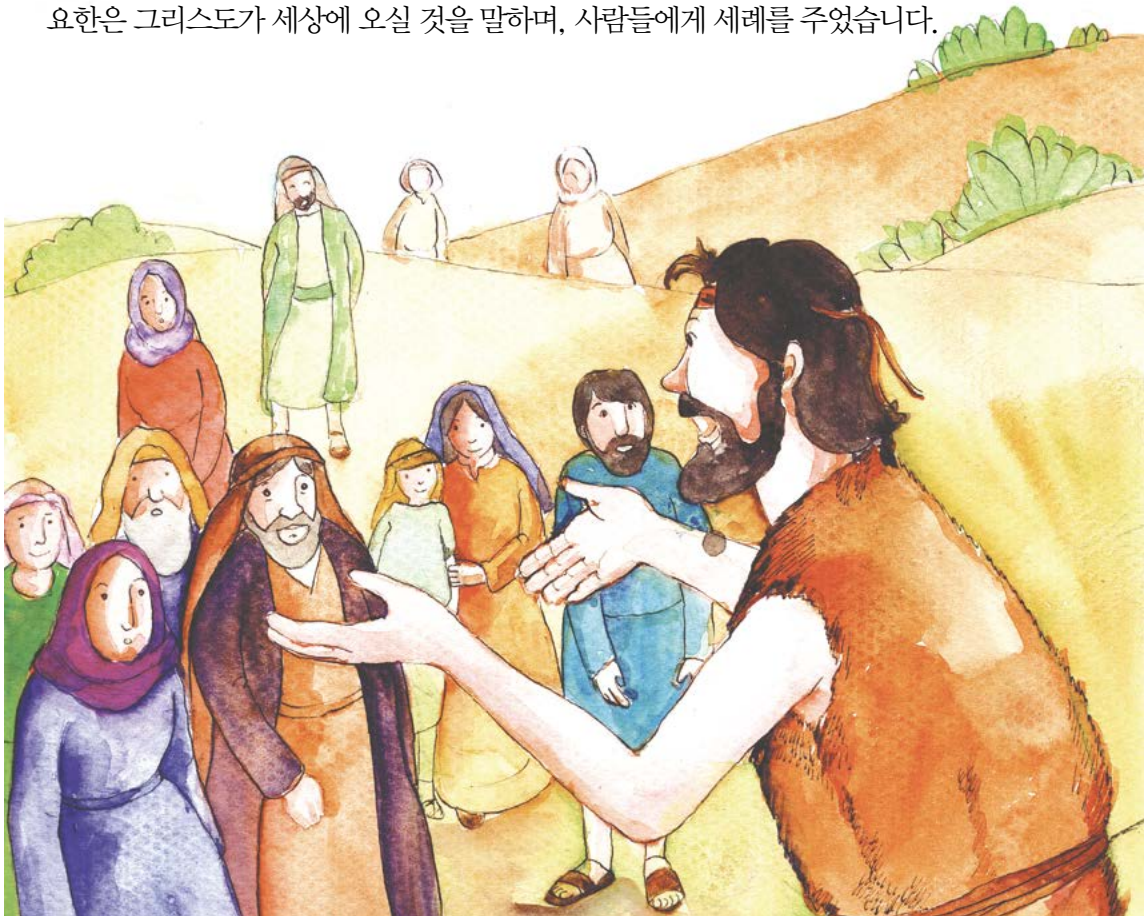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오. 나는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광야에서 외친 요한

1. 요한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 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 ②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 ③ 광야에서 살려고

2.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3.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요한의 소개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니 (고린도후서 3:3)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향기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림을 보며, 나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봅시다.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notes.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14)



예 화

* 진짜꽃

어느 여왕이 지혜로운 왕을 시험하려고 가짜 꽃과 진짜 꽃을 약 300미터 밖에 두고 구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왕은 신하를 시켜 통 하나를 여왕에게 주어 열어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여러 마리의 벌이 나왔습니다.

벌은 향기를 내뿜는 진짜 꽃으로만 날아갔습니다.

벌은 향기가 있고 꿀이 있는 진짜 꽃에게만 날아 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향기를 내야 합니다.

향기 없는 꽃이 가짜 꽃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모님
날

선생님
날